

전북대박물관 두 번째 동행전

‘나도 작가다’ 주제로 17~23일까지 박물관 중앙홀서 개최
전북대 여교수회 다양하고 개성 넘치는 작품 만날 수 있어

전북대박물관(관장 홍찬석)이 ‘동행’ 전 두 번째 전시를 마련했다. 국립대학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최근 델로스 작가를 초청, ‘타로나라 엘리스와 구름꿈’ 전시를 30일까지 진행하고 있는 전북대 박물관은 두 번째 전시로 전북대 여교수회의 다양하고 개성 넘치는 작품을 17일부터 23일까지 박물관 중앙홀에서 열린다. ‘나도 작가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두 번째 동행전은 우리 모두가 작가가 될 수 있다는 의미를 담았다. 이를 통해 지역민이나 대학 구성원의 참여를 독려했기 위해서다. 모두 3차에 걸쳐 릴레이 전시 형식으로 진행

되는 이번 전시에는 전북대 여교수들이 그린 것과 닭, 그림과 서예, 사진, 공예 등의 작품이 전시될 예정이다. 특히 1차 전시에서 전북대 여교수들은 ‘화합의 장’이라는 소주제로 작품을 모아 ‘지역과의 소통, 화합’이라는 이번 동행전의 가치를 담아낸다는 계획이다. 홍찬석 관장은 “대학 박물관의 문화 예술 공간을 지역민과 공유한다는 의미를 담아 동행전을 연이어 마련하고 있다”며 “지역민과 문화예술의 다양성을 나누고, 전북대박물관이 누구에게나 열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공감, 연대의 가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나도 작가다 전시 포스터.

익산시립무용단 · 풍물단, 합동 정기공연 개최

17일 예술의전당 대공연장서 ‘넥스트 모션(NEXT MOTION) III - 단원 작품전’

익산시립무용단과 시립풍물단이 농악과 사물놀이 등이 어우러진 생동감 넘치는 합동 정기공연을 개최한다. 익산예술의전당은 오는 17일 전당 대공연장에서 합동 정기공연 ‘넥스트 모션(NEXT MOTION) III - 단원 작품전’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익산예술의전당 홈페이지를 통

해 사전예약으로 대면 공연을 진행하며, 금강방송과 익산시립예술단 유튜브를 통해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송출한다. 공연은 다양한 울림을 통해 소리에 대한 색깔을 담아 타악기만의 역동성을 표현한 작품인 ‘多彩로韻(다채로운)’과 춘향전을 각색해 꾸민 ‘춘 봄날편지 짝’, 각 지역의 농악을 젊은 에너지로 새롭게 구성한 ‘The story of the

young artist’ 등 총 3편으로 구성됐다. 익산시립풍물단의 ‘多彩로韻’ 작품은 도당굿과 별신굿, 구름시나위, 수성가라, 사물놀이 등 즉흥성을 가진 다양한 울림을 통해 소리에 대한 색깔을 담았다. 후반부에 펼쳐질 별신굿을 사용한 사물놀이는 시간의 자유로움과 타악기만의 역동성을 표현해 감동을 줄 예정이다. 익산시립무용단이 출연하는 두 번째 작품 ‘춘 봄날편지 짝’은 최수진 등 20여 명의 시립무용단 단원과 객원이 출연한다. 꿈같은 사랑에 대한 애절한 심정을 절절한 언어로 표현했으며, 은하수 흐르는 오작교로 시작해 반복할 수 없는 순간들 그리움으로 사무쳐 돌이킬 수 없는 생이기에 내 사랑, 그대에게 전해보네 라는 구구절절한 심정을 표현해 감동을 준다. 이날 풍물단의 마지막 작품 ‘The story of the young artist’에서는 다양한 전통의 시간 흐름과 움직임을 이어받은 젊은 예술가들의 표현을 만끽할 수 있다. 그들이 만들어 내는 또 하나의 이야기를 젊음이라는 에너지로 표현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익산시립무용단과 시립풍물단이 만나 역동적이고 멋진 공연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많은 시민분들께서 공연을 통해 마음을 깨우는 다양한 울림과 에너지를 느껴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익산예술의전당 홈페이지에 회원가입하면 다양한 공연·전시 소식과 티켓 오픈 관련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익산예술의전당(063-859-3249)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재훈 기자



익산시립무용단과 시립풍물단이 농악과 사물놀이 등이 어우러진 생동감 넘치는 합동 정기공연을 개최한다.(사진은 풍물단 공연 모습)

문화가 있는 날 ‘하우스 콘서트’

군산예술의전당, 30일 ‘트리오 콘 스피리토’ 연주

군산예술의전당은 싱그러운 초여름 밤 6월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독일 슈투트가르트 국립음대 출신의 실내악팀 ‘트리오 콘 스피리토’의 연주를 하우스 콘서트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하우스 콘서트는 평소 접하기 힘들었던 연주 중심으로 관객들은 무대 가까운 객석에 앉아 공연을 즐길 수 있는 형식으로 다양한 장르를 공연자와 관객이 경계가 없는 무대 위 공간에서 콘서트를 즐길 수 있다는 특수성 때문에 매니아층이 두텁게 형성된 프로그램이다. 오는 30일 저녁 7시 30분 실시되는 이번 무대에는 실내악의 불모지라 할 수 있는 한국에서 앙상블 팀으로 11년간 활동하고 있는 ‘트리오 콘 스피리토’를 만나볼 수 있다. ‘트리오 콘 스피리토’는 국제 실내악 콩쿠르에서 우승하며 세계적으로 실력을 인정받은 팀으로 하이든, 슈만, 피아졸라 등을 연주해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하우스 콘서트는 문화가 있는 날의 일환으로 진행되며 전라북도과 군산시가 주최하고 예술의전당에서 주관한다. 전석 무료로 운영되나 비대면 티켓운영을 위해 티켓링크에서 16일부터 사전예약 가



능하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를 위해 공연장 방역 및 관객 마스크 착용을 필수로 운영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술의전당 홈페이지(www.gunsa.go.kr/art)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군산=남현봉 기자

국립전주박물관, SNS 대학생 기자단 모집

국립전주박물관(관장 홍진근)은 박물관의 생생한 이야기를 온라인으로 전해 줄 2021년도 제1기 SNS 대학생 기자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 신설된 SNS 대학생 기자단은 국립전주박물관 전시회, 문화행사와 교육 프로그램, 문화재 관련 취재 등을 통해 박물관 콘텐츠 홍보에 앞장서게 된다. 제1기 SNS 대학생 기자단은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활동하며, 블로그 취재기자(글, 사진), 영상 콘텐츠 제작 등 각 4명씩 총 8명을 선발한다. /장은성 기자

전북 지역 대학생이라면 지원할 수 있는 이번 기자단은 박물관 현장을 취재하는 글·사진 취재팀과 박물관을 찍고 재미있게 표현하는 영상 팀으로, 기자단으로 선발되면 활동사례비, 기자증과 명함,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타 지역 거주 기자는 교통비 및 숙박비를 지원하며, 우수한 기자는 연말 국립전주박물관 장상도 수여받는다. 지원희망자는 오는 30일까지 접수해야 하며, 국립전주박물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은성 기자

전북문화관광재단, 문화예술진흥본부 심의위원 공개 모집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기전)은 오는 30일까지 문화예술진흥본부 심의위원 후보자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분야는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다원예술, 시각예술, 문학, 예술교육, 문화일반 등이다. 이번에 모집된 심의위원 후보자는 추후 재단 문화예술진흥본부 지원사업의 심의 및 평가, 선정사업의 전문가 현장 평가 및 컨설팅 등에

일부 참여하게 된다. 심의위원 후보자로 신청을 원하는 자는 공고문 내용을 참고해 양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한 후 이메일(borajb@daum.net)로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심의위원 공개 모집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재단 누리집(www.jbct.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은성 기자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

